



제75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1월 8일)

초상으로 본 로마의 황제

백승미, 311호 고대 그리스·로마실 18:00~18:30

“육신의 모든 것은 강처럼 흘러가고, 혼의 모든 것은 꿈이요 연기이다. 삶은 전쟁이자, 나그네의 체류이며, 사후의 명성은 망각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 철학 뿐이다.”¹⁾

마치 인생의 선택이 전하는 이야기 한 구절 같습니다. 철학가인지, 학문에 내공이 깊은 학자인지 궁금해집니다.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하는 이는 다름 아닌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낸 그는 막사에서 쉴 때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인생에 관한 깊은 사색을 바탕으로 글을 썼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전장에서 밤의 고요를 맞이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황제의 지위를 가진 이가 자신을 성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로마의 황제가 모두 아우렐리우스 황제 같지는 않았습니다. 흔히 로마를 생각하면 제국 로마의 거대한 영토, 강력한 황제, 로마 시민을 위한 화려한 서커스와 축제의 흔적을 떠올리지만, 무엇보다도 로마의 중요한 유산은 원로원과 민회를 바탕으로 하는 공화정 체제일 것입니다. 한 개인의 절대적인 권력은 용납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지지 기반은 무시할 수 없는 정치권력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등장하는 과정은 공화정이라는 로마의 체제를 이해하고, 어떻게 해체되어 가는지를 눈여겨 볼 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확대 과정은 계속되는 전쟁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장수는 영웅으로 추대 받았으며, 로마 시민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수 일 혹은 수십 일에 걸친 화려한 개선 행진이 시작되면, 곳곳에 영웅을 위한 초상 조각이 제작되고 퍼져 나갔습니다. 초상 조각은 권력의 홍보이자, 새로운 시대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말, 카이사르의 독재관 정치를 시작으로 절대 권력을 향한 로마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비록 그 스스로 황제라 칭하지는 않았지만, ‘카이사르’라는 이름은 강력한 권위의 상징이 될 만큼 절대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대에도 카이저(독일의 황제), 차르(러시아의 황제) 등 황제를 뜻하는 단어들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1) 『명상록』 37쪽 발췌(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지음, 천병희 옮김, 2020, 도서출판 숲)

이후 카이사르의 암살과 제2차 삼두정치, 그리고 로마를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의 급변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른바 로마 제정의 시작, 강력한 로마 황제의 시작은 카이사르의 계승자이기도 했던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수여받은 그는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위와 권한을 차지합니다.(기원전 27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투스는 스스로는 여전히 국가 제1의 시민(프린킵스 키비타티스, princeps civitatis)라 칭하며, 황제라는 이름을 배제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이후 본격 시작된 로마의 제정 시대는 서로마가 멸망하는 476년, 그리고 비잔틴 제국으로서 동로마가 멸망하는 1453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5현제의 시대라 불리는 최전성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악명 높은 황제들의 실정과 군인황제의 범람으로 황제의 자리는 곧 암투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황제의 초상 조각은 단순히 한 개인을 표현한 예술이라기보다는 시대의 분위기, 그리고 황제의 요구 사항과 기대를 담은 시대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환호의 물결, 휘날리는 휘장 사이에서 자신의 조각상을 마주하며 행진했을 황제들의 면면이 이 초상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암살로 혹은 전장에서 얻은 병으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등 황제의 삶은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표현한 로마 황제의 조각은 한 시대의 힘과 강력한 목소리를 담아낸 역사의 한 장면으로 느껴집니다.



그림1.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초상>
대리석 흉상, 로마,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그림2.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초상>
대리석 흉상, 로마, 161-180년

가야의 예술문화

최은비, 107호 가야실 18:00~18:30

가야는 기원전후 낙동강 유역과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여러 나라, 즉 금관가야·아라가야·대가야·소가야 등을 함께 아우르는 말입니다. 각각의 가야는 수백 년의 긴 시간 동안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각자 개성 있는 문화를 만들며 성장했습니다. 가야는 풍부한 철과 수준 높은 철기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이른 시기부터 활발한 대외 교역 활동을 펼치며 발전했는데, 이 때 각종 예술 문화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철제품, 다양한 종류의 토기, 세련되면서도 섬세한 금속공예품 등 다양한 곳에서 가야의 예술적인 색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야는 직접 생산한 철로 무기, 갑옷, 말갈춤 등 다양한 철제품들을 제작했습니다. 실생활에 사용된 농공구나 무기는 실용성을 높이는 형태로 만들었고, 의기儀器나 껌묻거리 용도로 제작한 큰 칼이나 미늘쇠(有刺利器) 등은 화려한 장식을 더하여 주인공의 위세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용·봉황장식 고리자루 큰 칼은 주조鑄造·도금鍍金·투조透彫 등 가야 최고의 금속공예기술이 총집합된 결과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야는 장식을 할 때 고사리모양을 많이 활용하는데, 이는 미늘쇠·판갑옷·원통모양 그릇받침 등 다양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야는 철제품뿐만 아니라 토기제작에서도 수준 높은 기술력과 예술성을 보여줍니다. 고도화된 전문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야의 토기는 1,000~1,200℃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져 매우 단단하고 겉면에 광택이 나기도 합니다. 가야의 토기는 곡선미와 조형미를 공통적으로 살리면서, 지역마다 특징적인 요소들을 첨가하여 다채로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림1. 금관가야의 다양한 토기



그림2. 대가야의 금귀걸이



제75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1월 8일)

죽음, 그 너머의 세계

김영희, 203호 불교회화실 19:00~19:30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까? 먼저 떠난 사람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살아 있는 동안은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이 질문들은 천 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도, 먼 미래에도 유효할 것입니다. 불교는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하면서 사람들을 위한 많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달래고 먼저 간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계에 도달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한 여러 장치를 고안하였습니다. 불교미술로 표현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왕도十王圖>는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가면 차례로 만난다는 10명의 왕을 그린 그림입니다. 죽은 사람은 7일마다 한번씩 7번, 이후 100일, 1년, 3년이 될 때마다 한번씩 시왕을 만나 살아 있을 때 지은 죄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시왕신앙이 널리 퍼졌으며, 지장보살과 결합되어 ‘지장전’, ‘명부전’ 등 독립된 전각에 봉안되었습니다. <북한산 중흥사 시왕도>는 조선 후기의 승려 장인 신겸信謙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는 사찰이나 장인의 이름을 기록한 화기가 남아 있지 않으나, 신겸이 1828년에 그린 시왕도 초본草本(밑그림)과 거의 동일한 구성을 보여 신겸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이 그림에는 신겸이 1829년 이 밑그림을 활용하여 북한산 중흥사에 시왕도를 그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감로도>는 굶주리고 고통받는 영혼에게 음식을 베푸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극락에 가기를 기원하는 수륙재, 천도재, 우란분재 등 다양한 의식에 걸어 놓고 사용하였습니다. 상단에는 여러 부처와 보살이 내려오는 장면을, 중단에는 아귀에게 음식을 베푸는 장면을, 하단에는 현실에서 맞이하는 갖가지 재난과 죽음의 장면을 표현하였습니다. <보석사 감로도>는 1649년 충청남도 금산 보석사에서 조성되었습니다. 이 그림 하단에는 말을 타고 무기를 든 전투 장면이 그려졌는데, 보석사가 위치한 충남 금산 지역이 임진왜란 때 중요한 격전지였던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화면 왼쪽의 조총을 든 병사들과 오른쪽의 창을 든 병사들이 부딪히고 있어 당시의 신식 무기인 조총을 든 일본군과 조선군의 전투 장면으로 보입니다. 전쟁을 겪으며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지역에서 사망자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제750회 큐레이터와의 대화(2023년 11월 8일)

소장품 등록과 보관 관리

김세원, 209호 기증1실 19:00~19:30

국립중앙박물관은 지속적으로 소장품을 확충하기 위해서 소장품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합니다. 2023년 현재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롭게 수집한 소장품은 총 수량은 100여점으로 현재 유물관리부 수장고에 보관·관리 중입니다. 수집한 소장품을 수장고에 보관하고 전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 바로 소장품 등록입니다. 소장품 등록은 박물관이 수집한 국가유산을 박물관 소장품으로 공식 인증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외부에서 소장품을 처음 인수한 후 수장고에 반입하기 전 반드시 <훈증>을 하여 혹시 모를 해충 등을 제거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소장품 표면에 묻은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장품 고유의 등록 번호를 소장품 표면에 기재하고 등록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마친 후, 소장품별로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꼭 공유되어야 할 내용과 특이점을 확인하고 기술합니다. 기술 작업이 끝나면 소장품별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 보관 상자를 제작하고 재질별로 구분하여 수장고 격납장에 보관위치를 정해 격납합니다. 그리고 소장품 등록 과정을 통해 파악된 모든 정보를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소장품 등록 업무를 완료했다는 종결 문서를 작성하면 비로소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식 소장품으로 등록되는 절차가 최종 완결됩니다. 등록된 소장품이 여러 목적에 따라 관내외 활용을 위해 수장고 보관 장소에서 이동하는 경우, 관련 기록 역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실시간 보관처 정보를 관리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을 등록하고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바로 유물관리부이며 수장고 관리와 소장품 등록을 포함한 소장품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1. <등록품 표면 정리 작업>



그림2. <등록품 촬영 작업>